

## 145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### (12) 일광견뢰도가 낮은 커튼

#### □ 일광 견뢰도가 낮은 커튼

##### 해설)

- 2매 한 벌의 커튼을 클리닝 후 양쪽으로 열리는 중앙이 폭 약 10 cm 정도의 세로띠 모양으로 퇴색되어 있었음. 커튼을 쳤을 때에 중앙 부분이 띠 모양으로 퇴색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각 부분과의 색 차이를 시각적으로 대비해 보았음.



- 우선, 천 겉의 퇴색 부분인 단의 중앙부분은 다른 걸 부분과 비교해 퇴색되어 있지만, 위로 갈수록 색이 진해져 맨 윗부분에서는 다른 걸 부분과 차이가 없음. 또 퇴색의 특징으로서 커튼의 단으로부터 최초 접힌 부분을 따라서, 위로 부터 아래로 향해서 서서히 퇴색이 발생되어 있음. 다음에 퇴색한 단 부분의 뒤편을 다른 천 뒤편과 비교해 보면 겉이 퇴색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로 다른 천 뒤편보다 퇴색이 적어 보임.
- 이상으로부터 이 현상은 뒤편 위쪽으로부터 빛에 의한 퇴색이라 할 수 있음. 전체를 침지하는 클리닝 세정 공정에서는 천의 한 면에만 영향을 줄 수 없음.

통상 커튼은 양끝의 천의 길이 외측에 향하도록 꺾여지기 때문에 중앙에 해당되는 걸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직사광선을 받게 됨. 또 반대로 단 안 부분은 다른 뒷부분보다 빛을 받기 어려워짐.

- 모든 염색물은 자외선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퇴색되는 성질이 있음. 실제로 일정한 기간 걸쳐 있는 커튼 대부분이 이처럼 중앙에 해당하는 단 부분만 퇴색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. 클리닝 후에 눈에 띄는 것은 전체에 오염되어 있던 것이 제거되어 색 차이가 선명히 나타나기 때문임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[www.textilecare.kr](http://www.textilecare.kr)